

# 일제의 패전과 친일작가 張赫宙의 작가적 모색

金 鶴 童\*

(e-mail : ulsasuca@hanmail.net)

---

## 目 次

---

1. 머리말
  2. 패전이라는 현실인식과 작가적 태도의 변화
    - 2.1 평론을 통한 일본제국주의 비판
    - 2.2 전쟁에 대한 비판을 담은 휴머니즘적 글쓰기
    - 2.3 순문학 집필에 대한 욕망과 실천의 노력
  3. 민족에 대한 회한과 일본에의 귀화
    - 3.1 가족과 민족에 대한 회한
    - 3.2 6·25의 민족적 형상화와 일본에의 귀화
  4. 맺음말
- 

## 1. 머리말

장혁주<sup>1)</sup>는 1932년 일본의 문예잡지 『改造』에 투고한 「餓鬼道」가 입선하면서 일본문단에 등단하였다. 「餓鬼道」는 조선농민의 민족적 저항과 투쟁을 그려낸 작품으로 집필초기의 작가적 자세를 엿볼 수 있으나, 1939년의 「조선의 지식인에게 호소함(朝鮮の知識人に訴ふ)」을 발표하면서부터 점차 친일적인 글쓰기로 경도되어 갔다. 이후 임진왜란 당시의 왜장을 미화하거나 일제의 만주침략을 정당화하는 다수의 작품을 집필하였으며, 조선청년을 황군에 자원입

---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일본근현대(재일조선인)문학.

1) 1905-1997. 보통 장혁주(張赫宙)라는 필명으로 불리는 작가의 본명은 장은중(張恩重)이고, 일제말기의 창씨명은 노구치 미노루(野口稔)였는데, 1952년 일본으로 귀화하면서 이를 일본명으로 등록하였다. 張赫宙라는 필명도 귀화한 뒤에는 노구치 가쿠추(野口赫宙)로 바꾸었다.

대시키려는 목적으로 출간된 단편집 『이와모토 지원병(岩本志願兵)』과 같은 국책적 작품의 집필에 전념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친일작가로 낙인찍힌 장혁주는 해방된 고국에 돌아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패전으로 폐허가 된 일본에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작가로서의 재기를 시도한다. 이때는 패전에 직면한 일본민중의 고난을 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일종의 ‘휴머니즘적 집필기’라 할 수 있는 시기로, 일제의 패전 직후부터 작가가 일본으로 귀화하는 1952년 10월까지를 말하는데,<sup>2)</sup> 귀화 신청이 허가될 때까지 재일조선인의 살해 협박과 일본출판사의 냉대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면서도 비교적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속했다.

이 시기의 작품과 평론에서는 패전으로 고통 받는 일본민중들의 고단한 삶을 그려내는 한편으로, 조선인으로 패전국 일본에서 정착해야하는 작가적 고뇌와 노력이 뚜렷이 엿보이고 있으며,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 어중간한 입장을 반영하듯 다루고 있는 소재 역시 양 민족을 넘다든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조국에서 6·25가 발발하자 이를 소재로 동포에 대한 깊은 애착을 담아낸 비교적 많은 양의 소설과 르포 등의 저작을 남겼다.

본고에서는 장혁주의 문학적 행보 중에서 일제의 패전직후부터 일본으로 귀화하는 1952년 10월 무렵까지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아, 불안정한 민족적 정체성 속에서 집필을 모색했던 작가의 행적과 이를 반영한 신문·잡지 등의 기사와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패전이라는 현실인식과 작가적 태도의 변화

### 2.1 평론을 통한 일본제국주의 비판

장혁주는 일제의 패전 직후인 1945년 10월 22·23일자 『東京新聞』에 「아-조선의 운명(噫,朝鮮の運命)」이라는 글을 실고 있는데, 일제의 패전에 직면한 친일작가가 그 간의 행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작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기 위한 조심스런 행보였다.

(전략) ‘내선일체’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조선의 지식인들은 진정한 ‘내선일체’라면 조선이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반일사상가 중에 전향하는 사람이 속출하였다. 나도 그 중의 하나였다. (후략)<sup>3)</sup>

2) 김학동(2008.10) 『張赫宙의 일본어 작품과 민족』 국학자료원, p.14

3) 張赫宙(1945.10.23) 「噫,朝鮮の運命(下)」 『東京新聞』

이상과 같이 자신의 친일행적에 대한 진정성을 호소하는 한편으로, “솔직히 말해서 나는 조선의 문학을 위해 힘껏 일하고 싶다. 그렇다고 20권의 저작을 남긴 일본문단을 떠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sup>4)</sup>라는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내심 한국에서의 활약에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이내 재일조선인들의 친일협력자에 대한 협박과 보복이 시작되었고 장혁주 역시 그 대상의 한 사람이었다. 패전 직후의 궁핍한 생활 속에서 작가는 막연한 기대를 걸고 조련(朝連)<sup>5)</sup>사무국을 찾았다가 자신을 대하는 그들의 냉담한 태도에 놀라 뛰쳐나온다. 사무국의 한쪽에서는 찾아온 작가를 두고 “해치워. 아니, 좀 기다려. 해치우더라도 방법을 생각하자구.”<sup>6)</sup>와 같은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현실을 깨닫게 된 장혁주는 1946년 3월에 발표한 「일본국민에게 보낸다(日本國民に寄せる)」에서 일제의 전쟁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영합하려는 작가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참에 일본이 냉정하게 과학적인 자기비판으로 반성하여 참회하고, 지난날의 과오를 재차 범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중략) 자신을 포함해서 총 비판 총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7)</sup>

‘자신을 포함해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작가 스스로의 과거 행적에 대한 반성을 포함하여 비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일본국민에게 보낸다」 전반에 걸쳐 인용한 내용 이상의 작가와 관련된 비판의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비해 일제가 조선에서 ‘내선일체’라는 명목 아래 실시했던 여러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조목조목 열거한 뒤 “식민지 정책이 실시되던 당시의 비참한 조선의 상황은 생각만 해도 의분을 금할 수 없다”<sup>8)</sup>며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조선이 만일 일본에 병합되지 않고 조선인의 손으로 이조(李朝)를 무너뜨려

4) 전계주(3) 「噫,朝鮮の運命(下)」

5) 재일조선인 조직은 ①조련(朝連=在日朝鮮人連盟, 1945년 10월 결성)으로 출발하여 민전(民戰=在日朝鮮民主主義統一戰線, 1951년 1월 결성)을 거친 조총련(朝總聯=在日本朝鮮人總連合會, 1955년 5월 결성)과, ② 재일조선인거류민단(1946년 10월 반공청년조직인 조선건국축진청년동맹(建靑)과 신조선건설동맹(建同)을 중심으로 결성)으로 출발하여 대한민국의 정부수립(1948)과 함께 개칭한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이 있다.

6) 張赫宙(1953.3) 「脅迫」 『新潮』, p.128 ; 「脅迫」은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 재일조선인에 의한 살해협박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시절을 회고하여 집필한 자전적 작품으로, 자신의 친일적 행적에 대한 변명을 시도하기도 한다.

7) 張赫宙(1946.3) 「日本國民に寄せる」 『創建』, p.11

8) 전계주(7) 「日本國民に寄せる」 p.14

혁신 정부를 만들었더라면 조선인의 생활은 현재보다도 훨씬 향상되었을 것이고, 산림도 더욱 푸르렀을 것이다.<sup>9)</sup>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해방 이전의 친일적인 집필 자세와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가적 입장은 일제의 만주침략에 대한 언급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작가는 “유조구(柳条溝)사건이라는 날조사건으로 침략의 구실을 만든 것은 군벌”<sup>10)</sup>이라고 단정하면서, 만주개척민들이야말로 “일본의 만주침략의 비장의 수단”이었다고 말한다.

만주국에서 자행된 이와 같은 노골적인 식민정책만큼 일본민족의 이기주의를 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없으며, 그리고 이러한 이기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민족협화의 이념은 마침내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sup>11)</sup>

작가는 일제의 만주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주개척민과 이들을 지원한 정책당국을 미화하는 『開墾』(1943) 및 『행복한 신민(幸福の民)』(1943)과 같은 국책적 작품을 비교적 많이 집필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작가적 태도의 변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상의 고찰을 통해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림으로써 시국에 영합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한편으로 작가는 패전 직후의 일본민중의 참상을 전달하기 위해 힘을 쏟기도 한다.

그들 대부분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였다. 전에는 집과 이불이 있었고, 직장이 있었으며, 그리고 전쟁 중에는 후방의 생산에 내몰리고 있었다. 군인이나 관리, 자본가보다도 더욱 열심히 일을 했었다. 이와 같은 그들이 얼음장 같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조차 잠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sup>12)</sup>

우에노(上野)역 주변을 답사한 뒤 1946년 3월에 발표한 「어디로(何処へ—戰災孤兒調査記)」에서는 인용문에서와 같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일본의 민중과 전쟁고아들을 묘사하고, “위정자들은 군수회사에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지불할 의지는 있어도 굶어죽는 동포를 구하려하지 않는다”<sup>13)</sup>면서 사리사욕에

9) 전계주(7) 「日本國民に寄せる」 p.14

10) 전계주(7) 「日本國民に寄せる」 p.15

11) 전계주(7) 「日本國民に寄せる」 p.15

12) 張赫宙(1946.3) 「何処へ—戰災孤兒調査記」 『自由公論』, p.47

눈이 먼 정권과 자본가들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이처럼 장혁주는 자신의 친일행위를 양심적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고국에서의 문학 활동에 의욕을 보이던 패전 직후의 입장과는 다르게, 점차 일제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고 전쟁의 참화로 신음하는 일본인들을 인도적인 입장에서 묘사함으로써 새로운 작가적 입지를 구축하고자 노력한다.

## 2.2 전쟁에 대한 비판을 담은 휴머니즘적 글쓰기

장혁주의 소설을 통한 일제에 대한 비판은 식민지 말기의 작가적 체험을 다룬 「民族」(1946)을 통해 처음 시도된다. 이 소설은 작가가 “일본내지에 재류하는 조선인을 일본인화하기 위해 조직된 협화회(協和會)”<sup>14</sup>에 대한 문제로 귀족원 의원과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 “오사카처럼 도쿄 쪽도 힘을 더 썼으면 좋겠다”<sup>15</sup>는 취지의 작가의 발언이 『協和新聞』 창간호에 실린 것을 문제 삼은 도쿄 경시청에 의해 일본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몰리게 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일제 경찰의 무자비한 민족적 차별과 탄압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으로, “일본이 진정으로 조선에 대해 일본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차별철폐를 약속한다면 ‘내선일체’도 좋다”<sup>16</sup>는 식의 글을 쓴 자신의 과거 행적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작가적 모색을 시도하며 불안한 시간을 보내던 장혁주의 눈에 비친 일본민중의 고되고 궁핍한 삶은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작가적 감수성을 자극하였으며 이들을 소재로 한 일련의 작품을 집필하게 된다.<sup>17</sup> 이러한 경향의 작품으로는 장편 『고아들(孤兒たち)』(1946)과 『젊은 여자(若い女)』(1948), 단편집 『사람의 선함과 악함(人の善さと悪さと)』(1947)을 들 수 있다.

『고아들』은 작가의 일본인 동거녀 게이코(桂子)<sup>18</sup>와의 사이에 태어난 어린 자녀들과 같은 또래의 전쟁고아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담아낸 작품으로, 전쟁을 일으킨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비판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우호적인 묘사를 통해 작가의 조국에 대한 동경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단편집 『사람의 선함과 악함』(丹頂書房)은 「内弟子의 고백(内弟子の告白)」 「갈림길(わかれみち)」 「영원히(とこしえに)」 「脱出」 「처제에게(妹へ)」 「사람의 선함과 악함(人の善さと悪さと)」의 단편 6편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 작

13) 전계주(12) 「何処へ一戦災孤児調査記」 p.46

14) 張赫宙(1946.5) 「民族」 『創建』, p.92

15) 전계주(14) 「民族」 p.103

16) 전계주(14) 「民族」 p.93

17) 김학동(2008.8) 「張赫宙 문학과 패전국민의 삶」 『日本文化學報』 제38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137

18) 본명은 노구치 하나코(野口はな子)

품은 패전 직후의 혼란과 궁핍한 상황 속에서 각자의 삶을 지속하려는 여러 인간군상을 섬세한 필치로 조명하여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날카로운 작가적 시선을 담아내는 한편으로,<sup>19)</sup> 일제의 식민지배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그려내고 있다.

『젊은 여자』는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태평양 전쟁 말기와 패전 직후의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젊은 여주인공을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의 특징은 당시 여성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고발과 이에 대한 투쟁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 시기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일제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패전 직후의 휴머니즘적 글쓰기는 일본민중이 겪고 있던 비참한 생활상을 형상화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의 시각이 토대를 이루고 있다.<sup>20)</sup> 그리고 이러한 작가적 시각은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일제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묘사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의 패전이라는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장혁주의 작가적 모색은 교원의 임금을 현실화하여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주장<sup>21)</sup>을 펼치며 일본사회에 대한 참여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문필가로서 다작(多作)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현실을 개탄<sup>22)</sup>하는 것으로 작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도 한다.

### 2.3 순문학 집필에 대한 욕망과 실천의 노력

패전 직후의 장혁주는 사회참여적인 저작활동으로 작가적 입지를 확보하려 노력하는 한편 “다량 생산을 하지 않으면 문단에서 몰락하는 시대가 되었어도 힘든 생활을 참아가며 하나의 (순문학)작품에 심혈을 기울이고 싶다”<sup>23)</sup>며 순문학 집필에 대한 집념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가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집필된 것으로 보이는 단편으로 운명적인 불륜을 그려낸 「죄의 끝(罪の行方)」(1948)<sup>24)</sup>과 선천적인 남성편력의 성향을 지닌 여성의 삶을 형상화한 「지옥의 여자(地獄の女)」(1949)<sup>25)</sup>가 있다.

「죄의 끝」은 도박꾼인 남편을 전쟁터로 떠나보낸 한 여인이 사랑하면서도

19) 전계주(17) 「張赫宙 문학과 패전국민의 삶」 p.148

20) 전계주(17) 「張赫宙 문학과 패전국민의 삶」 p.152

21) 張赫宙(1946.11.8) 「敎員の立場」 『東京新聞』

22) 張赫宙(1946.11.8) 「文學の行方」 『東京新聞』

23) 張赫宙(1946.11.8) 「わが念願」 『東京新聞』

24) 張赫宙(1948) 「죄의 끝(罪の行方)上·下」 『時代』

25) 張赫宙(1949.2) 「지옥의 여자(地獄の女)」 『文芸讀物』

주위의 반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던 옛 연인을 만나 다시 사랑에 빠져들지만,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바람에 자살하고 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사회통념으로서의 ‘불륜’과는 다른 진실한 인간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남녀의 정신적으로 순수한 만남을 그려내고 있다.

「지옥의 여자」는 작품에서 “태생적 불운을 살아가는 하나의 숙명”<sup>26)</sup>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듯이, 태생적인 성벽(性癖)을 지닌 여성의 숙명을 유머감이 뛰어난 필치로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죄의 끝」과 「지옥의 여자」는 모두 일제 말기의 곤궁한 생활을 배경으로 표출되는 인간의 본성을 심도 있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순문학에 가까운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일제의 패전에 직면한 장혁주가 신문 등의 기고문과 일본민중의 비참한 생활을 묘사한 인본주의적 작품 및 순문학적 소설의 집필을 통해서 과거의 자신의 행적을 미화하거나 일제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고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히려 한 노력을 확인해 보았다. 결국 패전 직후의 작가적 행적 역시 일제 말기의 친일적인 글쓰기로 경도되어 갈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하겠다.

### 3. 민족에 대한 회한과 일본에의 귀화

#### 3.1 가족과 민족에 대한 회한

장혁주는 전후의 일본문단에 정착하기 위한 작가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자신의 친일행적과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작가적 입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은 1949년 11월에 발표된 「偽善者(第2編)」(『小説界』)라 할 수 있다.

「偽善者(第2編)」는 조선에 있는 생모와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작품으로, 조선의 아내 귀란(貴蘭)<sup>27)</sup>이 시집오기 전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며<sup>28)</sup> 자신의 일본에서의 행복한 삶을 방해

26) 전계주(25) 「지옥의 여자(地獄の女)」 p.47

27) 본명은 김귀행(金貴行)

28) 작가가 결혼한 것은 대구고보 2학년 재학 중이던 겨울 방학이라고 <『遍歷의 調書(遍歷の調書)』(1954)>에서는 설정하고 있으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는 매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偽善者」에서는 작가의 나이를 15세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아내의 불륜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생각된다. 작품에서는 작가의 장녀를 자신의 자식이 아닌 것처럼 그려내고 있는데, 그 이유로 15세의 어린 나이에 자식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전개해 간다.

하는 모진 여인으로 묘사<sup>29)</sup>하는 등, 다른 자전적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내에 대한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생모와 조선의 처 귀란이 이혼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일본인 아내 게이코와 자식들이 자신의 호적에 오를 수 없는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在日朝鮮人批判」(1949.12)에서는 재일조선인들의 왜곡된 민족의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조선의식이 강한 요즘 사람들도 그 자식들 대(代)에서는 부모들과 같은 민족의식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왜 나쁘단 말인가?”<sup>30)</sup>와 같은 언급을 통해 게이코와의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자식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장혁주는 이와 같은 민족적 정체성의 불안 속에서도 조선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애착을 담아낸 동화집 『은혜 갠 제비(恩を返したツバメ)』(羽田書店, 1949.3)를 간행하였다. 이 조선 동화집에는 「은혜 갠 제비」<sup>31)</sup> 「호랑이를 사로잡은 토기(トラをいけどったウサギ)」 「도깨비 방망이(オニのかなぼう)」 「용궁의 어머니(龍宮の母)」<sup>32)</sup>와 같이 네 편의 한국동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웃 나라 조선의 (중략) 동화를 접하고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입니다”<sup>33)</sup>라는 ‘후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어린이들에게 조선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는 작가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동화집이라 하겠다.

그리고 1950년 3월에 英親王의 회고를 토대로 한 『비원의 꽃(秘苑の花)』(1950.3)을 출간하였는데, 이 작품은 英親王이 어린 시절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 이끌려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배경을 시작으로 일본의 황족인 마사코(方子)여왕과의 결혼, 그리고 일제의 육군 중장으로 제1항공군 사령관을 역임한 직후 패전을 맞이하기까지를 그려내고 있다. 이와 같은 작품의 집필 동기는 英親王과 작가 자신 사이에 커다란 신분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행적에서 둘 다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英親王은 그의 과거행적에 관한 논란 속에서도 이의 책임 소재를 쉽게 논하기 어려운 특수한 신분을 지닌 존재였으므로 작가는 이를 방패삼아 자신의 입장에 대한 변명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sup>34)</sup>

29) 張赫宙(1949.11) 「偽善者(悲しい魂)」 『小説界』, p.59

30) 張赫宙(1949.12) 「在日朝鮮人批判」 『世界春秋』, p.71

31) ‘興夫伝’을 새롭게 고쳐 쓴 작품.

32) ‘沈清伝’을 새롭게 고쳐 쓴 작품.

33) 張赫宙(1949.3) 「あとがき」 『恩を返したツバメ』 羽田書店, pp.229,230

34) 김학동(2008.4) 「장혁주의 『비원의 꽃(秘苑の花)』론 - 英親王의 半生에 투영된 작가의 정서적 자화상 -」 『인문학연구』 통권73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143



조국에서 6·25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취재를 통해 르포형태의 기사 및 보고서, 그리고 장·단편 소설의 집필에 전념하던 장혁주는 1952년 7월에 스스로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테마로 한 기고문 「조선인의 반성(朝鮮人の反省)」을 『도쿄신문(東京新聞)』에 3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7월 28일자 첫 번째 기고문에서는 ‘숙명의 민족감정(宿命の民族感情)’이라는 부제목으로 한·일 간에 가로놓인 민족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민족’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다”라는 말로 시작하여, “한·일 양 민족만큼 가까운 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목을 거듭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보다도 “닭은 사람들끼리의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즉 “패자(覇者)인 강자에 대한 반발이고, 피학(被虐)자의 압박자에 대한 반격”이라는 감정이 한·일 양 민족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통해서 장혁주는 같은 민족이나 다름없는 한·일 양국의 국민이 “상대방이 자신과 너무 닮으면 혐오”하는 인간의 감정적 특성에 의해 서로를 미워하고 있다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한·일 양 민족이 아무리 서로 많이 닮았고 설령 그 뿌리를 같이한다 하더라도, 일제에 의한 강압적 지배와 민족적 차별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일방적인 일본민족에의 흡수 통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하겠다. 엄연히 언어와 문화, 그리고 민족적 특성이 다른 양 민족의 독립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역사적인 관계만을 강조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확신하고 있는 사고방식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결국 이와 같은 언설을 통해서 일제말기의 황국신민화에 대한 동경과 열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작가의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다.

7월 29일자 두 번째 기고문은 ‘일본의 마음(日本の心)의 체득’이라는 부제목으로 투고하였는데, 젊은 시절의 작가 자신은 “민족의식에 사로잡혀” 사회혁명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감정에 치우친 잔인할 정도의 공식적인 전술이 문학적인 센스가 풍부한 자신과 맞지 않아서” 그만두었다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후에는 훌륭한 일본어를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일본의 마음’을 체득하게 되었다며 그 경위와 배경에 대해 언급한다.

그 ‘일본의 마음’을 서적뿐만이 아니라, 나라(奈良) 지방에 보존되어 있는 고미술 속에서 찾아냈을 때의 기쁨은 매우 컸다. 고미술 속에서 ‘백제’와 ‘신라’의 미를 배움과 동시에, 그것이 ‘일본의 미’로 발전 변화해가는 과정과 마침내 일본적인 창조물로 완성된 것을 보고, 나 자신의 ‘조선’과 ‘일본’이 융합해서 새로운 것이 탄생될 가능성을 시사 받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sup>35)</sup>

장혁주는 ‘일본의 마음’이라는 것을 패전 이후의 좌우명으로 삼았음을 밝히고 있는데, 고대 일본과 백제의 문화교류를 토대로 탄생된 ‘일본의 미’와 연계 시킴으로써, 자신이 지니고 있는 조선적이고 일본적인 특성을 살려서 새로운 ‘일본의 마음’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작가적 입장은 고대 한반도로부터 이주한 선조들이 일본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처럼 자신도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과거 선조들의 행적을 비난 할 수 없듯이 자신의 집필 행위 역시 나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적인 민족말살 정책을 찬동하던 집필활동이 좌절되자 일본에 정착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양 민족의 가교역할을 자임하는 장혁주의 기회주의적인 글쓰기를 고대의 일본에 선진문물을 전파하여 문명사회로 이끈 선조들의 행적과 같은 맥락에서 논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폭력행위와 ‘벽(壁)’」이라는 부제의 7월 30일자 마지막 기고문에서는 민족주의라는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다.

‘민족주의’라는 ‘주의’는 묘한 것이긴 하지만, 자신의 민족의식에만 충실하고 다른 민족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이전의 우익적인 사고가 일본에 대두된다면 그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함과 동시에, 조선인의 고루한 민족의식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나의 ‘민족의식’은 이런 식으로 성장해왔는데, 나의 이 특수한 경우를 다른 조선인에게 따르라고는 할 수 없다.<sup>35)</sup>

이와 같은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재일조선인들이 일본공산당과 연계하여 정부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민족주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혁주는 “일본공산당의 일본인 지도자가 재일조선인을 선두에 세워 싸우게 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조선인의 폭력행위는 “조선인의 생활이 궁핍해지고, 일본의 권력자가 교묘하게 만들어낸 ‘벽’”에 부딪히면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즉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일본공산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한편으로, 이러한 술수에 말려들고 있는 재일조선인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혁주의 이와 같은 작가적 태도는 재일조선인들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인들의 억압과 차별에서 벗어나 한민족의 정체성 회복을 목표로 한 민족적 저항운동을 일본공산당에 이용당하

35) 張赫宙(1952.7.29) 「朝鮮人の反省」 『東京新聞』

36) 전계주(35) 「朝鮮人の反省」

는 단순한 폭력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東京新聞』에 「조선인의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에 걸쳐 게재된 장혁주의 글을 통해서 일본인으로 귀화하기 직전의 민족에 대한 작가적 자세와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고대의 역사적인 한·일 간의 교류를 근거로 삼아 양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작가적 노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인의 황국신민화 정책에 가담했던 일제말기의 행적에 대한 합리화와 일본에 귀화하기로 작정한 자신의 내적 갈등 및 외부의 비판적인 시선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전개한 것이라 하겠으며, 일본의 독자들에게 자신의 특수성을 부각시켜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히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의 패전 이후에 친일 행적의 논란으로 곤경에 처해있던 장혁주는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한 민족주의 세력의 친일파 청산과 같은 정치적 움직임을 매우 불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특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일본에서 재일조선인들이 일제의 만행을 비판하며 한민족의 후예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작가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심경이 언론을 통해 자신의 민족주의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3.2 6·25의 민족적 형상화와 일본에의 귀화

과거의 친일행적과 민족에 대한 회한을 쉽게 끊어 내지 못하고 있던 장혁주에게 새로운 전기가 도래하는데, 그것은 바로 6·25전쟁의 발발이었다. 작가는 1951년 7월과 1952년 10월에 신문과 잡지사의 특파원 자격으로 6·25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작가는 취재한 내용을 신문과 잡지에 기고하거나 소설 창작의 소재로 삼았는데, 그 양이 상당수에 이른다.

〈르포·기사〉

- 「조선민족의 성격(朝鮮民族の性格)」 『毎日情報』 1950. 9.
- 「조선유적의 파괴를 염려한다(韓国遺跡の破壊を憂う)」 『毎日情報』 1950. 11.
- 「한국 르포(韓国へのルポ)」 『毎日新聞』 1951. 7.
- 「허덕이는 한국(喘ぐ韓国)」 『明窓』 1951. 7.
- 「조국 조선에 날아가다-제1보(祖国朝鮮に飛ぶ-第1報)」 『毎日情報』 1951. 9.
- 「조선의 농민(朝鮮の農民-祖国の戦乱に想う)」 『農民文学』 1951. 9.
- 「고국의 산하(故国の山河)」 『毎日情報』 1951. 11.
- 「조국 조선의 고뇌(祖国朝鮮の苦悩)」 『地上』 1952. 2.
- 「계속되는 한국의 불안(韓国の不安はつづく)」 『地上』 1952. 11.
- 「조선르포(朝鮮…ルポルタージュ)」 『群像』 1953. 1.

<소설>

- 「부산항의 파란 꽃(釜山港の靑い花)」面白倶楽部、1952. 9.
- 「부락의 남북전(部落の南北戰)」『文芸春秋』1952. 4.
- 「避難民」『新潮』1952. 5.
- 「異国の 아내(異国の妻)」『警察文化』1952. 7.
- 「눈(眼)」『文芸』1953. 10.
- 「부산의 여간첩(釜山の女間諜)」『文芸春秋』1952. 12.
- 『아-조선(嗚呼朝鮮)』新潮社、1952. 5.
- 『無窮花』講談社、1954. 6.

<르포·기사> 중에서 「조선민족의 성격」과 「조선유적의 파괴를 염려한다」는 6·25전쟁이 시작된 직후에 조국에서 전개되는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들려오는 소식에 의존하여 집필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민족의 성격」은 북한군의 전면적인 남침을 호전적인 고구려의 성격과 연결시켜 논하거나, 고대삼국의 성격을 통해서 한민족의 전반적인 민족성을 확인해보겠다는 다소 조국의 전쟁을 방관하는 듯 한 성격을 띠고 있다. 「조선유적의 파괴를 염려한다」에서도 한반도에서 있었던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파괴되어온 유적들을 되돌아보며 이번 전쟁으로 또 다시 조국의 많은 유적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담아내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런데 1951년 7월에 취재를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한 이후의 르포나 기사에서는 생생한 현장감이 감돌고 있어 이전의 두 작품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허덕이는 한국」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궁핍과 혼란을 그려내는 한편으로, 이승만 정권이 과거의 친일과 관리의 등용을 둘러싸고 고민에 빠져있다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그런데 “겉으로는 반일을 말하면서 본심은 일본을 선망하고 동경하여 일본에 가고 싶어 하는 한국인들이 많다”며 “역시 일본은 좋은 곳이구나”라는 작가적 감상을 곁들임으로써 재건에 힘쓰고 있는 일본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여러 르포와 기사 중에서 6·25의 참상에 직면한 작가의 괴로운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조국 조선으로 날아가다」와 「고국의 산하」라 할 수 있다. 이 두 르포는 비교적 긴 내용의 취재 보고를 통해 계층과 이념의 대립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살육의 참상에 직면해 있음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국의 참상에 대한 비통한 작가적 시선은 6·25를 소재로 한 많은 소설에서도 엿보인다.

그런데 6·25를 소재로 한 <소설> 중에서 「부산항의 파란 꽃」 「異国の 아내」 「부산의 여간첩」은 일제말기에 조선인과 결혼한 뒤 여러 사정으로 한반도에 정착한 일본인처(日本人妻)<sup>37)</sup>들이 한국전쟁에 직면하여 겪게 된 고난

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장혁주가 6·25로 인한 고난을 겪고 있던 日本人妻들을 소설의 소재로 삼은 것은 「異國의 아내」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녀들의 처지를 동정”<sup>38)</sup>했기 때문이라 하겠는데, 서로 다른 처지에 놓여 있는 日本人妻들을 세 편의 작품으로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작품에서는 부산으로 향하는 피난길에서 어린 자식을 눈 속에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들의 마음속에 사무친 통한의 슬픔을 집요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일본인 동거녀인 게이코(桂子)와의 사이에 어린 자식을 여럿 두고 있었던 작가적 입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눈」은 1952년 10월에 두 번째로 조국을 방문한 작가가 서울을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작품으로, 이미 일본으로 귀화한 작가를 의심하는 주위의 시선을 감내하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을 그려내려 노력하는 작가 스스로의 입장에 대한 묘사를 비교적 많이 담아내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상과 같은 6·25를 소재로 한 르포 및 기사, 그리고 소설들은 모두 장편 『아-조선(嗚呼朝鮮)』과 『無窮花』로 집대성되고 있는데, 특히 「부락의 남북전」과 「避難民」과 같은 작품은 『아-조선』의 중심적인 줄거리로 흡수 발전된다.

장혁주가 『아-조선』과 『無窮花』와 같은 장편을 통해 6·25의 참상을 그려낸 주된 목적은 한민족의 고난에 대한 형상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가 무엇보다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일제 치하에서 독립된 조선의 민중이 그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좌우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대결의 희생양이 되어 무참히 짓밟히고 도륙당하는 상황의 사실적인 묘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조선』과 『無窮花』에는 좌우 또는 중도파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옹호론적인 언급이나 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작가의 내면에 고국의 동포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잔존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같은 동포를 살육의 참상으로 몰아넣는 이데올로기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민족의 공존을 최대의 가치로 삼아 6·25의 참상을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통절하게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작가의 내면세계에 자리 잡고 있던 민족의식이 강렬하게 작용한 덕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39)</sup>

그러나 장혁주는 6·25전쟁을 소재로 한 저작을 통해 조국의 참상에 대한 민

37) 일제 식민지시기에 조선(한국)인과 결혼해 살다가 일제의 패전 이후에도 한국에 남게 된 일본여성을 말한다. ‘在韓日本人妻’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호칭일 것이나, 본고에서는 ‘日本人妻’로 표기하고자 한다.

38) 張赫宙(1952.7) 「異國의 아내(異國の妻)」 『警察文化』 p.158

39) 김학동(2008.5) 「장혁주의 『아-조선(嗚呼朝鮮)』 『無窮花』론 -6·25전쟁의 형상화에 엿보이는 작가의 민족의식-」 『日本學研究』 제24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343

족적인 아픔을 담아내는 한편으로 자신의 친일행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추측은 작가가 두 번째 취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본으로 귀화하였으며, 일본인의 신분으로 조국을 찾았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바뀌 말하면 6·25전쟁으로 친일청산문제에 골몰해 있던 조국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일본인이 되기로 작정한 작가이지만 민족의 참상을 그려냄으로써 스스로의 작가적 양심에 일말의 돌파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신의 민족애를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본인으로 살아갈 결심을 한 작가에 있어 동포에 대한 마지막 봉사였던 셈이었다.

6·25전쟁으로 인해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었지만 나름의 안정을 찾으면서 장혁주의 관심은 일본 국내의 사회문제로 급격히 전환되어 간다. 패전 직후의 일본에서 겪고 있던 고통과 심적 갈등이 일본으로의 귀화와 6·25전쟁이라는 민족적 아픔을 그려내는 것으로 일단락을 짓게 되었던 것이다.

##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친일작가 장혁주의 문학적 행보 중에서 일제의 패전직후부터 일본으로 귀화하는 1952년 무렵까지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아, 불안정한 민족적 정체성 속에서 집필을 모색했던 작가의 행적과 이를 반영한 기사와 작품의 특징을 확인해 보았다.

먼저 일제의 패전에 직면한 장혁주의 입장 및 작가적 모색에 대한 검토와 이를 반영한 작품들을 고찰하였는데, 자신의 친일행적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일제를 비판하는 작품을 여러 편 집필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패전 직후의 곤궁한 삶을 꾸려가는 일본민중에 대한 휴머니즘적 시선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 작용하는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부정하기도 어려웠다.

그리고 자신의 친일행적과 민족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조선과 일본이라는 민족과 국가적 경계에서 방황하는 작가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민족이 지닌 독자성과 존재가치를 축소함으로써 일제에 동조한 자신의 과오를 희석시키려는 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나, 한민족을 말살하려한 일제와 작가의 행위를 정당화할만한 이렇다 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6·25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자신의 동족에 대한 연민과 고통을 그려내려는 노력을 끝으로 완전한 일본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작가적 노력 역시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자신의 친일행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일제의 패전에 직면한 장혁주는 과거의 친일적 글쓰기에 대한 미화를 시도하거나 일제를 비판하는 등의 신속한 입장변화를 모색하였으며, 독자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패전으로 인한 일본인의 고통을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려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국에 두고 온 가족과 민족에 대한 갈등을 여러 작품에 담아내었으며, 6·25전쟁을 다룬 일련의 민족적 작품의 집필을 끝으로 일본인으로 귀화하여 새로운 작가적 출발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학동(2008.4) 「장혁주의 『비원의 꽃(秘苑の花)』론 - 英親王의 半生에 투영된 작가의 정서적 자화상 -」 『인문학연구』 통권73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143
- \_\_\_\_\_ (2008.5) 「장혁주의 『아-조선(嗚呼朝鮮)』 『無窮花』론 -6·25전쟁의 형상화에 엿보는 작가의 민족의식 -」 『日本學研究』 제24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343
- \_\_\_\_\_ (2008.8) 「張赫宙 문학과 패전국민의 삶」 『日本文化學報』 제38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137
- \_\_\_\_\_ (2008.10) 『張赫宙의 일본어 작품과 민족』 국학자료원, p.14
- 張赫宙(1945.10.22) 「噫,朝鮮의運命(上)」 『東京新聞』
- \_\_\_\_\_ (1945.10.23) 「噫,朝鮮의運命(下)」 『東京新聞』
- \_\_\_\_\_ (1946.3) 「日本國民に寄せる」 『創建』, p.11
- \_\_\_\_\_ (1946.3) 「何處へ一戰災孤兒調査記」 『自由公論』, p.47
- \_\_\_\_\_ (1946.5) 「民族」 『創建』, p.92
- \_\_\_\_\_ (1946.6) 「民族」 『創建』, p.103

- \_\_\_\_\_ (1946.11.8) 「教員の立場」 『東京新聞』
- \_\_\_\_\_ (1946.11.8) 「文学の行方」 『東京新聞』
- \_\_\_\_\_ (1946.11.8) 「わが念願」 『東京新聞』
- \_\_\_\_\_ (1948) 「죄의 끝(罪の行方)上·下」 『時代』
- \_\_\_\_\_ (1949.2) 「지옥의 여자(地獄の女)」 『文芸読物』, p.47
- \_\_\_\_\_ (1949.11) 「偽善者(悲しい魂)」 『小説界』, p.59
- \_\_\_\_\_ (1949.12) 「在日朝鮮人批判」 『世界春秋』, p.71
- \_\_\_\_\_ (1949.3) 「あとがき」 『恩を返したツバメ』 羽田書店, pp.229,230
- \_\_\_\_\_ (1952.7.28.29.30) 「朝鮮人の反省」 『東京新聞』
- \_\_\_\_\_ (1950.9) 「조선민족의 성격(朝鮮民族の性格)」 『毎日情報』.
- \_\_\_\_\_ (1950.11) 「조선유적의 파괴를 염려한다(韓国遺跡の破壊を憂う)」 『毎日情報』
- \_\_\_\_\_ (1951.7) 「한국 르포(韓国へのルポ一)」 『毎日新聞』
- \_\_\_\_\_ (1951.7) 「허덕이는 한국(喘ぐ韓国)」 『明窓』
- \_\_\_\_\_ (1951.9) 「조국 조선에 날아가다-제1보(祖国朝鮮に飛ぶ-第1報)」 『毎日情報』
- \_\_\_\_\_ (1951.9) 「조선의 농민(朝鮮の農民-祖国の戦乱に想う)」 『農民文学』
- \_\_\_\_\_ (1951.11) 「고국의 산하(故国の山河)」 『毎日情報』
- \_\_\_\_\_ (1952.2) 「조국 조선의 고뇌(祖国朝鮮の苦悩)」 『地上』
- \_\_\_\_\_ (1952.11) 「계속되는 한국의 불안(韓国の不安はつづく)」 『地上』
- \_\_\_\_\_ (1953.1) 「조선르포(朝鮮…ルポルタージュ)」 『群像』
- \_\_\_\_\_ (1952.9) 「부산항의 파란 꽃(釜山港の青い花)」 面白倶楽部
- \_\_\_\_\_ (1952.4) 「부락의 남북전(部落の南北戦)」 『文芸春秋』
- \_\_\_\_\_ (1952.5) 「避難民」 『新潮』
- \_\_\_\_\_ (1952.7) 「異국의 아내(異国の妻)」 『警察文化』
- \_\_\_\_\_ (1953.10) 「눈(眼)」 『文芸』
- \_\_\_\_\_ (1952.12) 「부산의 여간첩(釜山の女間諜)」 『文芸春秋』
- \_\_\_\_\_ (1952.5) 『아-조선(嗚呼朝鮮)』 新潮社
- 野口赫宙(1954.6) 『無窮花』 講談社



## 要 旨

本稿では親日作家張赫宙の文学的活動のなかで、日本帝国の敗戦直後から日本に帰化する1952年頃までを考察の対象にして、不安定な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なかで執筆を試みた作家的行跡と、それを反映した新聞・雑誌の記事及び作品の特徴を考察してみた。

その結果、敗戦に直面した張赫宙は過去の親日的執筆に対する美化を試みたり、日本帝国を批判するなどの迅速な態度の変化を模索したほか、読者の好感を得るために敗戦による日本人の苦しみをヒューマニズム的立場から描く努力を傾けていたことが確認できた。そして、祖国に捨ててきた家族と民族に対する葛藤を描くかわら、韓国戦争を扱った多くの著作の執筆を最後に日本に帰化し、作家的人生の新しい出発を図っ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

キーワード：張赫宙、韓国戦争と日本人妻、日本帝国の敗戦と張赫宙文学、  
張赫宙文学と韓国戦争、日本への帰化、在日朝鮮人批判

투 고 : 2008. 11. 30  
1차 심사 : 2008. 12. 13  
2차 심사 : 2008. 12. 27